

두산인문극장 2025: 지역 LOCAL

조선 후기 국토의 발견과 살 곳의 모색 안대회

일시: 2025년 4월 14일 7:30-9:30pm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 및 녹음할 수 없습니다.

조선에서는 국토지리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여 관리했다. 조선왕조는 행정, 군사, 교통 등 공공의 목적과 수요를 위해 종합적이고 표준적인 정보를 집적하였고, 유형원, 김정호 등 개인이 편찬한 경우도 이와 큰 차이는 없었다. 18세기에 조선에서 지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폭증했는데, 이때 표준적인 정보만 다른 지리지와 달리 정교하게 제작하면서 새롭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국토지리를 해석하고 평가한 새로운 인문지리서가 등장했다.

주요 논의 내용

- 18세기 조선 사람의 국토 지리와 거주지에 대한 관심
- 이중환 《택리지(擇里志)》의 거주지 담론
- 이중환 이후의 거주지 담론

거주 공간을 선택하는 것은 학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전문가가 맡는 실무로 간주되었다. 합리적 지식과 술수 차원의 주장이 뒤섞인 풍수적 주거론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다. 사대부 학자들이 풍수설의 술수로부터 독립해 거주지 선택을 두고 담론을 활발하게 펼친 시기는 상당한 후대의 일이다.

17세기 후반부터 전국 단위로 지역 산물과 경제, 풍속 등을 논한 저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지승(地乘)』, 『동방식화지(東方食貨志)』, 『해동화식전(海東貨殖傳)』 등이 상업이 발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특정한 지역의 거주지가 좋고 나쁨을 따졌고, 생활 백과의 성격을 지닌 『산림경제(山林經濟)』는 ‘복거(卜居)’를 책의 맨 앞에 두어 거주지 선택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었다. 다만 이 논의들은 풍수설의 술수에 속하는 내용을 주로 다뤘다.

거주지 선택을 본격적으로 담론의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인물은 청담(淸潭) 이중환(李重煥, 1690~1756)으로, 그가 쓴 《택리지(擇里志)》는 완전히 새롭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국토지리를 해석하고 평가한 지리지이다. 국토를 지역(〈팔도론〉)과 주제(〈복거론〉) 별로 나누어 설명한 것은 지리학사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최초의 시도였는데, 거주지 선택에 관한 새롭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출간 후 250여 년 동안 독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마을 선택의 지침서’를 뜻하는 《택리지》의 기본 취지는 거주지 선택이다. 지금 시점으로 따지면, 어느 동네 아파트를 사면 값이 오르고 어떤 지역에 땅을 사놓으면 나중에 값이 오를지 지역별로 분석하거나 조건별로 따져 예측한 것과 같다. 그만큼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상의 문제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처럼 《택리지》가 건넨 “당신이라면 어디에 살겠는가?”라는 질문은 이전까지 아무도 공개적으로 해본 적 없는 것이었다.

이중환은 직접 전국 각지를 탐방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지식과 정보를 종합하여 조선 팔도의 거주지를 다각도로 평가하였고, 그중에서 최적의 거주지를 제시하였다. 그가 선별하여 제시한 거주지는 실제로 사대부들에게 이주의 욕구를 부추겨 담론의 대상으로 크게 떠올랐다. 또 사대부에게 적합한 거주지는 다른 신분 사람에게도 적합하기 쉬우므로 신분을 떠나 보편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중환이 주거지를 선택하는 기준은 〈복거론〉에서 제시한 ‘지리’, ‘생리’, ‘인심’, ‘산수’로, 구체적 지역을 평가할 때 네 가지 기준을 균형감 있게 적용하였다. 겉으로는 ‘지리’가 가장 앞선 기준이고, ‘산수’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만 실질적으로 ‘생리’를 최우선에 두었다. 네 가지 기준을 전국에 종합적으로 적용한 〈팔도론〉에서 ‘생리’를 다른 기준보다 더 중시하고 빈번하게 적용했다.

생업과 이익의 관점을 거주지 선택에 우선적으로 둔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주목한 장소는 기존에 국가의 행정 체계나 지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고 지식의 보편적 체계에 편입되지도 않은 곳이었다. 이중환은 현실적인 정보에 근거하고 낡은 지식과 정보는 무시했는데, 이는 지방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혁신적인 태도였다.

혁신은 팔도의 행정 중심지인 감영(監營) 소재지의 서술과 평가에서 잘 드러난다. 팔도의 경제, 교통, 이동을 논할 때 감영 소재지가 중심에 놓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중환은 감영 소재지와 주요 거점 도시의 비중을 축소하였다. 널리 알려진 지식과 정보를 줄인 대신 인구, 경제, 교통과 같은 실질적 지표로 지역을 평가하여, 새로이 변창하는 지역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발굴·소개했다.

이중환의 지역 평가는 현실적이고 모험적이었다. 각 지방의 경제 동향을 민감하게 포착하였고, 경제 중심지를 주거지로 주목하여 지역 정보로 정확하게 기록하였다. 특히 국가의 미곡 창고가 설치된 곳이 교역의 중심지로서 인구가 밀집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그가 경제 중심지로 주목한 곳은 원산, 강경, 광천, 목포, 법성포, 유궁포(由宮浦) 등지의 포구와, 한강과 낙동강, 예성강, 금강 수계에 있는 교통요지였다. 포구는 사대부의 관심에서 먼 곳이었지만, 이중환은 포구를 물류가 집중되는 도회지이자 교통이 편리하고, 인구가 집중되어 상업활동이 번성한 지역으로 주목하였다. 지성사에서 포구가 지닌 지리적 가치를 이렇게 주목한 저술은 처음이었다.

이중환의 영향을 크게 받은 저술로 2종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명오지(名塢志)』다. 《택리지》에서 주목한 지역과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저술한 이 책은 이중환이 가거처라 부른 살기 좋은 집터를 명오(名塢)라는 이름으로 재정의하고, 이중환의 서술을 대거 수용하되 자신의 견문과 관점을 적용하여 보완하였다.

다음으로 서유구(徐有榘, 1764~1845)는 이중환과 성해응을 계승하여 좋은 집터를 폭넓게 다뤘다. 그의 『임원경제지』 권 107 과 권 108 에 수록된 제 15 지 『상택지(相宅志)』는 본격적으로 거주지와 주택의 문제를 다룬 보기 드문 저술이다. 『상택지』는 새로운 집터를 장만하려는 자신의 욕구를 기초로 삼아 이상적 거주 공간을 장만하려는 사대부의 보편적 욕망을 학문 차원으로 승화하여 저술한 책이다.

안대회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정밀하면서도 깊이 있는 사유를 바탕으로 옛글을 고증하고 해석해 왔으며, 담백하고 정갈한 문체로 선인들의 글과 삶을 풀어내 왔다. 지은 책으로 『한국시화사』, 『조선의 명문장가들』, 『담바고 문화사』, 『궁극의 시학』, 『벽광나치오』, 『조선을 사로잡은 끈들』, 『정조의 비밀편지』, 『선비답게 산다는 것』, 『18 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등 다수가 있고, 옮긴 책으로 『명심보감』, 『채근담』, 『해동화식전』, 『한국 산문선』(공역), 『완역 정본 택리지』(공역), 『내 생애 첫 번째 시』, 『북학의』 등 다수가 있다.